



創 立 30 주 년 맞 은

韓 國 農 工 學 會

李熙榮회장과 함께

福祉農村 건설에의 主役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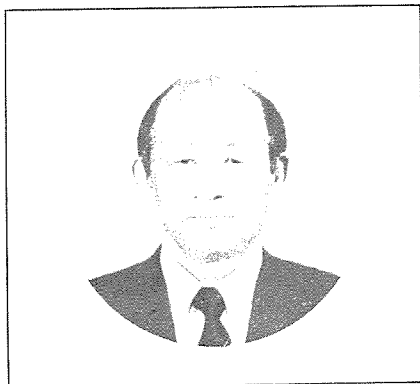
尖端技術도입과 研究機關확충 서둘러야

『韓國農工學會는 1957년 1월 발족한 이후 30 개星霜을 우리나라 農業근대화와 食糧의 자급자족을 위한 農業基盤조성사업, 평화롭고 풍요한 살기좋은 농어촌건설 및 국토건설을 위하여 학술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지난 30년간의 업적을 스스로 과찬하거나 자만에 빠지기 보다는 21세기를 향한 풍요로운 祖國건설을 위해 굳건한 발판마련과 새로운 奉仕를 다짐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韓國農工學會 李熙榮회장(서울시립대공대 토목공학과교수)은 學會가 오늘이 있기까지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農工學界의 중심체로서 농공기술과 학술발전은 물론 農工人들의 결속과 친목을 도모하고 또한 급변하는 국제정세속에서 식량자급을 위한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수반되는 학문과 기술을 集大成하는데 적지않게 공헌한 것이 사실이나 2천년대의 복지농촌건설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발전과 정진을 계속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있으므로 앞으로 학회에 부과된 사명이 더욱 크다고 말한다.

따라서 그동안의 실적과 경륜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각오로 農工學이 綜合科學의 적절한 위치에 놓이도록 힘쓰는 한편 새로운 학문과 기술의 탐구와 개발로써 國際的인 學會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모든 力量을 결집시키겠다고 다짐한다.

1957년 대한농업토목기술협회로 발족한 이래 63년 대한 농업토목학회, 69년에 다시 한국농공



◇李熙榮 회장

학회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른 韓國農工學會는 편찬위원회를 비롯 관개배수분과, 농지조성분과, 수공분과, 토질기초분과, 재료시공분과, 지하수분과, 농어촌개발분과, 교육분과, 농업기계 시설분과, 농지방재분과, 농지개발기획분과위원회등 12개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 각 분야별로 활발한 연구활동을 벌이고 있다.

學會는 특히 올 30주년을 自祝하기 위해 지난 8월말 조출한 기념행사를 가졌는데 외국의 농공관계전문가를 초청, 기념강연 및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했으며 지난 30년간의 케적을 총정리한 『韓國農工學會 30年史』도 발간했다고.

李회장은 올해로 30돌, 成年을 맞이한 學會는 1700여명의 개인회원과 26개 단체회원을 거느린 막강한 학술단체로 우리나라 농촌건설의 중심체로서 그리고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농공기술을과

시하고 첨단과학기술을 수용·보급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주역으로서의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李회장은 또 농공학의 성장과 함께 발전해온 농업공학은 우리나라와 같이 水稻作중심의 농경국가에서는 식량을 얻기위해 그리고 풍요로운 농경문화를 꽃피우기 위해 저수지나 淤를 막고 揚·排水, 방수시설을 마련하는 데서부터 출발하여 경지정리, 개척, 간척에 이르기까지 농토에 대한 인위적인 개조, 개척을 통해 오늘의 풍토와 농업의 터전을 구축해 왔다고 소개한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우리농업양상은 식량수요패턴의 변화와 함께 主穀의 자급달성, 농업노동력의 타분야로의 흡수, 농촌과 도시와의 환경격차 등으로 인해 크게 달라져 가고 있으며 이에따라 농업의 기계화가 필수적인 전제가 되고 있고 이에 따르는 생산기반의 정비는 고도의 質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米作중심의 생산체계가 다양한 생산체제로 전환되어 가고 있으므로 이를 수용할 태세를 갖추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지금까지 우리 농업공학은 농업용수 개발사업과 경지의 확대 및 정비에 주력해 왔으나 앞으로는 목표의 다변화를 통하여 활동범위를 확대 하므로써 복지농어촌 건설에의 주역을 담당해야 합니다』 李회장은 급변하는 사회·경제여건하에서 변모하는 산업구조와 농축산물에 대한 수요패턴의 변화는 농촌과 농지를 보는 새로운 시각과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개발전략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기술체계의 刷新이 당면과제라고 지적한다.

이제부터라도 농공학은 첨단과학기술의 도입과 연구기관의 확충으로 학문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면에서도 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를 과감히 늘려 급변하는 기술세계에 대처할 수 있는 저력을 양성함은 물론 농어촌 발전을 주도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국제적인 학술교류와 기술협력을 통해 최신정보의 습득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높이 평가받고 주목할만한 연구성과도 올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인다.

『우리 농공학분야의 수준을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관개·배수등의 분야는 외국에 비해 손색이 없으나 農機械분야는 다소 뒤져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李회장은 우리 농공기술자들이 태국, 인도네시아 등지에 진출해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 것만봐도 전반적인 수준은 일정단계에 올라있다고 볼 수 있으나 농기계 보급율에 있어서는 선진수준에 훨씬 못미치고 있는 현실이라고 밝힌다.

이는 우리의 노동력이 아직까지는 풍부할 뿐더러 농업의 영세성으로 인해 機械化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李회장은 이웃 日本만해도 農路의 대부분이 포장상태인 반면 우리 농촌 현실은 그렇게 못하므로 먼저 농촌환경개선에 힘쓰고 기계화로 인한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 말한다.

아쉬운대로 1986년 현재 72%의 논이 水利畲化되었고 35%논이 경지정리되기는 하였으나 37만여ha의 水利不安全畵의 처리문제와 田作物의 수요증대에 대처하기 위한 밭의 생산환경개선을 위한 기반정비(用水확보 및 경지정리)등 산적된 개발과제가 농공인의 지혜와 기술을 기대하고 있으므로 학회가 중심점이 되어 하나하나 착실하게 풀어나가겠다고 다짐한다.

『오늘날과 같이 점차 食量이 무기화하는 추세에서 볼때 식량의 자급자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國家的인 차원에서 농업생산성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에 더욱 더 힘써야겠습니다』 李회장은 2천년대를 향한 農林水産부문의 장기과제로 營農의 規模化와 機械化촉진, 山地의 효율적인 개발이용등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權光仁 記>